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오늘 주일공동예배 설교는 방한 중이신 독일 드레스덴 대학교 Dr. Christian Schwarke 교수님이 하십니다. 사랑방공동체를 방문하신 교수님 내외분께 감사합니다.  
통역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고원석 교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 멋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해외문화체험(미국) 수업을 위해 최기찬 전도사님과 함께 4월 20일(목) 20:40에 출국합니다.
- 사랑방성서모임 임원 모임이 4월 22일(토) 14:00에 모입니다.
- 제198회 평양노회가 4월 18일(화) 서울 흰돌교회에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 예은 생일 감사 )  
임상희 권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16 호

2023년 4월 1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부활의 목격자들(찬양잔치 말씀 요약본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일깨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깨워준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던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일러서 가르쳐서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즉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말합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열두 제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전히 살아있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 그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관찰할 수 없는 일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호수에 떨어지는 순간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주변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흔적이 남아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강렬할수록 그 남아있는 여파가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의 파동은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

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사건의 진실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제자들은 모두 겹을 먹고 뽕뽕이 흠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이 없어지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걸어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야고보는 갈릴리에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바돌로매는 아르메니아 알팍 지방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유대에서, 다대오는 페르시아에서, 시몬 역시 페르시아에서, 가룟유다 대신 열두 사도의 반열에 오른 맛디아는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십자가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그는 밧모 섬에 갇혀서 복음서와 계시록을 비롯한 여러 성경을 집필하며 일평생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부활 사건이 일으킨 그 파동은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보인 바 되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도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핵심을 일깨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한주간의 말씀

“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  
<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05장 359장 / 365장

기도 :

성경 : 열왕기 하 19장

제목 :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시다

1. 내용: 앗시리아의 위협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다. (What)  
1절~7절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다  
8절~13절 앗시리아 왕의 도발  
14절~37절 하나님께서 앗시리아를 치시다
2. 의미: 히스기야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였다. (Why)  
1) 베옷을 입어서 자신의 감정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었다.  
2)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였다.  
3)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3. 적용: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자. (How)  
1)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2)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이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자.  
3) 기도는 행복의 의미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자.

## 부활절 찬양 예배를 마치고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다.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새벽의 남산 야외음악당이 떠오른다. 아직 덜 깬 눈으로 엄마와 언니들의 손을 잡고 남산 야외음악당 광장의 물 빠진 철망 사이로 발이 안 끼이려고 노력하며 걸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새벽 공기와 푸르스름한 하늘빛. 항상 부활의 예수님은 그런 빛깔과 냄새, 그리고 약간의 소슬함과 기다림으로 오셨다.

우리 사랑방에서는 해마다 부활절 찬양잔치가 대단했다.-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긴 했었지만.-몇 주 전부터 계획하고 걱정하고 기대하고.. 남자 집사님들은 그 울동만 없으면 좋겠다고 애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남자 집사님은 울동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얘기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그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다니신다)

그렇게 준비되다가 부활 주일 낮 예배가 끝나면 각 방마다 너무나 분주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옷들까지 맞춰 입고 등장을 한다. 쑥스러움 속에서 열심히 울동하고 나면 그 쑥스러움에 보다 더 큰 만족감과 기쁨이 온다. 함께 웃고 박수 치고 찬양을 하다 보면 정말 찬양이 부활의 잔치 자리가 된다.

이번 찬양잔치도 참 재미있었다. 올해는 각 방마다 준비가 달라서 더 재미있었다. 어떤 방은 성숙한 찬양으로, 어떤 방은 너무나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실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다. -난 이 ‘깜짝 놀랐다’는 표현이 웃는 모습에 대한 느낌으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내 느낌은 그랬다.- 깜짝 놀랐고, 그리고 예쁘고..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느낌이었는데 옆에서 ‘앵콜, 앵콜!’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이럴 때 나타내는 감정이 ‘앵콜!’이구나 싶었다.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보낸 찬양잔치였는데, 이번 한 주가 정말 행복했다.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다. 울동으로 기억된 찬양의 가사가 차츰차츰 마음속에 차오르며 기쁨이 되었다. 합천에서 생활하는 남편, 김영동 집사에게도 치유의 주님의 예비하신 계획이 있으리라고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설교자 : Rev. Dr. Christian Schwarke 목사

인도자 : 정재훈 목사

통역 : 고원석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27 : 1, 4 인도자  
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골로새서 1 : 13-14 인도자

16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요한복음 20 : 11-18 고원석 목사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디아코니아사랑방

“ 부활을 보셨습니까? ” Rev. Schwarke 목사

###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289 다함께

인도자

주님의 사랑이 다함께

정재훈 목사

정재훈 목사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서병욱 임진숙/ 봉헌위원 : 김일구/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저희에게 부활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허락해주십시오. 아멘.

## 공동기도문

### 부활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볼 수 있습니까? 무덤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마리아와 예수는 영화 속 두 연인처럼 만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리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놀랍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만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부활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될 때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때때로 부활을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종종 옛 삶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오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영화는 그러한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슬픔에서 사랑으로, 절망 속에서 마리아는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고, 구원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때 그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부활 이야기는 우리 삶 전체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도록 초대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전경희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해화동에 있는 국립어린이과학관에 다녀왔습니다. 놀이와 체험으로 과학을 배우는 곳이라 꾸러기들도 여기저기 탐색하고 만지고 놀며 즐겁게 온종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학기 들어 처음 도시락을 가지고 간 날이라 함께 도시락 나누어 먹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김밥과 유부초밥, 주먹밥 그리고 후식으로 싸운 과일을 서로 나누어주고 친구 것도 먹어봅니다. 망설이지 않고 선뜻 자기 것을 나누는 꾸러기들의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이번 달 체육시간에는 균형 잡기를 합니다. 의자, 테이블, 평균대, 미끄럼틀 위를 두 팔을 벌리고 조심조심 균형을 잡고 걸어갑니다. 다른 곳을 보면 넘어집니다. 평균대를 건널 때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의자 위를 지나갈 때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올해는 다섯 살 꾸러기들도 균형을 잘 잡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평균대 위를 한 발 한 발 건너가는 꾸러기들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 어린이학교

지난주 날씨는 참 다양했습니다. 여름처럼 더워져서 찬물과 에어컨 바람이 간절해질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흐리고 싸늘해서 도톰한 옷을 입고 난방을 틀어야 되기도 했습니다. 미세 먼지와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 보냈지만 봄꽃들은 아랑곳없이 예쁘게 피어나고, 매일 모래놀이터에는 성도 쌓이고 굴도 파지고, 갖가지 모래음식들도 만들어졌네요.

월~ 수요일까지 치과 안과 내과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내과에선 피를 뽑을 때 몇번을 찔렸다는... 몸무게를 잴때는 보이지 않고 싶어 했다는... 검진 병원에 우리 아이들 신발의 흙 때문에 가는 길마

배움과 가르침

다 흙덩이(?)가 뿌려져 선생님들이 몸뭉치를 모르는 모습.... 아이들의 눈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좋은것 환경 탓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개장한 어린이학교 도서관에서는 월요일 수요일 도서관을 여는 날이기도 하고, 생활한복을 입는 날이기도 해서 월요일 자유 시간에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와 트램펄린은 쉬기도 했습니다. 대신 도서관도 가고 전체 학년이 함께 어울려서 다른 놀이도 하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엔 세종문화회관에서 슈퍼클로젯 공연 나들이가 있습니다. 공연관람 후 경복궁 산책 계획이 있습니다.

한 주간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 멋쟁이학교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꽃잎도 떨어지지만, 여러 행사와 더불어 근심도 떨어져나가는 듯한 주간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생일파티가 있었습니다. 학기 첫 생일파티로서 1-4월 생일들을 위한 편지쓰기, 댄스, 간식, 여러 놀이들로 함께 축하하며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목요일에는 탁구대회로 오후 내내 목소리가 변하도록 신나게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스포츠 정신에 힘입어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코이노니아 3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멋쟁이들이 심혈을 기울여 직접 만드는 소식지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4학년이 최기찬 선생님과 함께 해외문화체험으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른 세계로 뛰어들어 다양한 경험을 위해 가는 것이니, 안전 속에서 많은 배움이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 교사 : 이어진 >



##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드디어 새롭게 방 조직이 이루어 졌다.

그루터기사랑방도 새 식구 몇 분을 반갑게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했다. 방 조직이 된 후 부활절까지는 한 주 밖에 남지 않아 한 주 동안 힘을 모아 부활절 찬양 잔치 준비를 했다. 주중에 카톡을 통해 함께 곡을 선정했는데 방장님이 울동도 같이 하자는 의견을 올렸다. 그리고 부활절 전날 사랑방 식구들이 모두 모여 공동체 구석구석을 열심히 청소한 후에 우리 방 식구들은 따로 모여 찬양 연습을 했다. 방장님이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이 날 함께하지 못했지만 방장님의 고견을 잊지 않고 울동도 만들었다.(나중에 방장님이 울동이 웬 말이냐며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발뺌을 했지만 그러기엔 이미 늦었다. 우리 그루터기사랑방 식구들은 방장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착한 양들이었던 것이다.) 우리 방엔 꾸러기학교 선생님 두 분이 계셔서 거의 일사천리로 울동을 만들 수 있었다.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자고 결의를 다지며 토요일 연습을 마무리했다.

부활절을 맞이했다. 예배를 드리고 다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고 다시 찬양 연습을 시작했다. 준비하는 내내 즐겁고 웃음꽃이 피는 시간이었다. 몸치인 나와 방장님 때문에 더욱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참 오랜만에 배를 잡고 깔깔 함께 웃는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부활절 찬양 잔치가 열렸다. 꾸러기사랑방과 어린이사랑방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각 방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드렸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 잔치가 펼쳐지는 시간 다른 방 식구들의 찬양을 들으며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방 모든 식구가 함께 기뻐하고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누린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새로 시작하는 방모임도 찬양 잔치처럼 행복하기를 바란다.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더욱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루터기사랑방 박태규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171장 349장

성 경 : 고린도전서 15:50-58

말 씬 : 참 승리를 주신 예수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곳곳에 일어나는 산불>

1) 어제 강원도 강릉 경포동에서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잔불도 잘 마무리가 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오두막 공동체>

1) 사회의 약자, 소외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만큼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2) 이재영 장로님과 권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1) 식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문제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2) 손님분들이 좋은 경험하시고, 말씀이 전달 될 수 있기를.

3) 다음 주 멧쟁이 4학년들이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인솔 교사와 학생들 모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묵은 나뭇잎을 제거해준 화단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들은 연두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밭에 시금치를 전량 뽑아서 다듬는 일도 하고, 비 소식에 밭을 갈아 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모종을 심을 때입니다. 마당에 준비되고 있는 게르는 바닥에 벽돌을 하나 하나 고정하면서 곧 사용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체에 많은 손님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선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방모임을 하게 된 후 첫 지킴이를 하게 되어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준비하는 성가대 찬양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